

전주방언의 ‘ㄹ’ 말음 어간과 ‘으’의 수의적 실현

백은아(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자동적 교체의 지향 |
| 2. ‘ㄹ’ 말음 어간 뒤 ‘으’ 실현 양상 | 3.2 패러다임의 단일화 |
| 3. ‘으’ 실현의 비음론리적 요인 | 4.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전주 방언에서 ‘ㄹ’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으’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ㄹ’ 말음 어간이 ‘(으)ㄴX류’ 또는 ‘(으)ㄷX류’ 어미와 결합할 때 ‘ㄹ’과 ‘으’를 모두 실현하는 이유는 자동적 교체를 확대하려는 화자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 화자는 자동적 교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통해 활용 패러다임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경우, 패러다임을 수정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ㄹ’ 말음 어간이 ‘(으)CX류’ 어미와 만날 때는 ‘으’를 실현시키는데, 이를 통하여 활용의 패러다임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즉 화자는 자동적 교체를 확대하려는 의지와 활용 패러다임을 단일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으’를 실현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전주 방언, ‘으’계 어미, 어간 말자음 ‘ㄹ’, 수의적 실현

1. 머리말

본고는 전주 방언에서 ‘ㄹ’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과 ‘으’계 어미의 결합 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으’를 대상으로 그 실현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으’계 어미는 활용을 할 때 ‘으’가 삽입되거나 탈락되는 어미를 가리키는데, ‘-으면’, ‘-으시-’, ‘-으니’, ‘-을’, ‘-은’ 등의 어미가 이에 포함된다¹⁾. ‘으’계 어미의 ‘으’는 어간의 말음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데, 말음이 모음이면 ‘으’가 탈락하고 자음이면 ‘으’가 실현된다. 다만 어간 말음이 ‘ㄹ’일 경우 ‘으’가 탈락한다.

그런데 현대 국어 구어에서는 ‘ㄹ’ 말음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으’가 실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으’의 수의적 실현이 많이 언급된 바 있다. 우리는 ‘ㄹ’ 말음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수의적 변이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의 논의는 ‘ㄹ’ 말음 어간들의 활용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으’계 어미의 기저형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²⁾.

1.1.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고 있는 불완전한 체계이다. 한 언어 내에서 공식적으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화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동시대에 나타나는 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기도 하고, 그것의 발생 빈도와 분포가 늘어나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시대 한 방언권 내에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살펴보는 것은 언어 변화의 요인과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

1) 국어 ‘으’계 어미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연구 주제인 만큼 그 연구 결과 역시 다수 축적되어 있는데, ‘으’계 어미의 ‘으’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매개 모음’, ‘삽입 모음’, ‘조성 모음’ 등이 쓰여 왔다. 이에 대해서는 배주채(1993)를 참고할 수 있다.

2) 우리는 ‘ㄹ’ 말음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으’가 실현되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배주채(1993)에 따르면 ‘으’계 어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논의는 어미 두음설, 삽입설, 어간 말음설, 쌍형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어미 두음설은 김완진(1972), 이병근(1981), 변용우(2006)의 연구가 있고, 삽입설은 강창석(1982), 이동석(2000) 등의 연구가 있다. 어간 말음설에는 박승빈(1935) 등이 있고, 어미에 다중 기저형을 설정하는 쌍형설에 대해서는 김성규(1988), 최명옥(1991), 엄태수(1994) 등의 연구가 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은 다양한 언어 수행(performance) 속에서 나타나는 변이이다. Antila(1972: 210)에 따르면 언어는 실제 구체적 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학습되고 청자들은 발화들을 해석한다. 만약 언어 수행 속에서 표면형이 애매하여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면, 화자는 표면형을 수정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할 것이다.

공시적인 교체를 통해 도출되는 변이형은 그 음운론적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과 빈도수에 따라 ‘발화 실수’, ‘수의 변이’, ‘규칙 변이’ 등으로 불릴 수 있다. 촉발(actuation)에 의해 개신형(innovation form)이 나타나면, 그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빈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발화 실수로 간주될 것이다. 이때 발화 실수는 언어 연구에서 큰 관심을 얻지 못한다. 반면 수의적 현상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분포와 빈도수를 확보한다면 이때 이 변이형은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 영향을 준다.

만약 어떠한 개신형이 오랜 시일에 걸쳐 나타난다면, 그것의 출현 원인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ila(1972: 140)에서 밝힌 것처럼 대부분의 변화는 오랫동안 한 언어의 공시적 연구에 남아 있다.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몇 백 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변이가 변화에 합류하려면 오랜 시일에 걸쳐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출현 환경이 단순화되고 일반화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변이의 다음 행보를 짐작할 수 있다.

1.2. 우리의 논의 대상은 ‘전주 방언’으로 한정한다. ‘으’의 수의적 실현은 여러 방언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변이형의 출현 시기와 확대 양상은 방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의적 음운 현상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는 현대 국어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소방언권에 나타나는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짐작해 보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전주 방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타 방언에서 나타나는 ‘으’ 실현을 설명하는 데

3) Milroy(1992: 3)는 언어 변화가 항상 진행중에 있고, 모든 방언들 역시 전이의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언어 변화를 다루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주 방언에서 ‘ㄹ’ 발음 어간 뒤 ‘으’게 어미의 ‘으’가 실현되는 예를 살펴볼 것이다. 또 이러한 실현 양상이 19세기 후기 완판본 고소설에서 드물게나마 나타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ㄹ’ 발음 어간 뒤에서 ‘으’게 어미의 ‘으’가 실현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인데, ‘으’가 실현되는 비음운론적인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대 국어 이전에 시작되었던 ‘으’의 실현이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그 요인을 고찰할 것이다.

2. ‘ㄹ’ 발음 어간 뒤 ‘으’ 실현 양상

2.1. 공시 음운론에서 ‘ㄹ’ 탈락 현상은 어간 발음이 ‘ㄹ’일 경우 ‘ㄴ’ 또는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곡용에서는 ‘ㄹ’ 발음 어간과 ‘으’게 어미가 결합할 경우 ‘으’가 탈락하지 않지만, 활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으’가 탈락한다(김완진 1972, 이병근 1981, 송철의 1991 등)4).

그런데 전주 방언에서 용언 어간 발음 ‘ㄹ’은 ‘으’게 어미와 결합 시에 규칙성을 보이지 못하고 탈락되거나, 또는 ‘ㄹ’과 ‘으’가 모두 실현되기도 한다. 전주 방언에서 ‘ㄹ’ 발음 어간 뒤 ‘으’가 빈번하게 실현되는 현상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통하여 그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 1) ㄱ. 오늘이 소금 한 짐 가지구와 팔은(팔+-으)ㄴ 돈이랑 작대기 팔은
돈이랑 가지구 이 소금 장사는 가 버렸잖아.<전북전주시완주군편,373>
- ㄴ. 귀신이 머리를 꼭 잡고 콧구녕으로 꼭 밀으면서(밀+-으)면서 눈물
이 철철 나구.<전북전주시완주군편,388>
- ㄷ. 우리만 잘 살으면 뭇 허요? 당신도 살으시요(살+-으)시+-요 <전

4) 김완진(1972)에서는 탈락하는 ‘으’가 기저에서 이완성 자질을, 탈락하지 않는 ‘으’는 기저에서 긴장성 자질을 가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추상적 기저형과 외재적 규칙순을 인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병근(1981)과 송철의(1991)은 곡용과 활용의 페러다임의 차이를 통해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 2) ㄱ. 아이 그럼 나도 그래야겠다고 인제 팔(팔--+-(으)르) 계획으로 그럴
적에 시아비 팔라고(팔--+-(으)라고)<전북전주시완주군편,188>
ㄴ. 밤에 대문을 바짝 밀면서(밀--+-(으)면서) 탕탕 두두리며<전북전주시
완주군편,426>
ㄷ. 부인을 친정살이 보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오(살--+-(으)시--+-(으)5)
<전북전주시완주군편,508>

1)에서는 용언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으’가 실현된다. 그러나 2)의 경우 1)과 음운론적으로는 같은 조건이지만 ‘으’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듯 ‘으’ 실현은 수의적인 것으로서, 실현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규칙화하기 어렵다. 전주 방언에서는 화자에 따라, 또는 화자의 말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으’가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⁶⁾. 위의 예들을 통해 ‘ㄹ’ 말음 어간이 ‘으’계 어미와 결합 시 나타나는 활용형들을 일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팔(賣)-	밀:(推)-	살:(居)-
3) {-(으)ㄴ계 ⁷⁾	[판계]~[파른계]	[민:계]~[미른계]	[산:계]~[사른계]
{-(으)ㄴ}	[판]~[파른]	[민:]~[미른]	[산:]~[사른]
{-(으)시}	[파시]~[파르시]	[미:시]~[미르시]	[사:시]~[사르시]
{-(으)시오}	[파시오]~[파르시오]	[미:시오]~[미르시오]	[사:시오]~[사르시오]

이병근(1981)에서는 유음이 [+voc, +cons]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음의 수의적 탈락은 유음의 자질 [+voc, +cons] 중 어느 쪽이 작용하는가에 달

- 5) ‘으’가 실현되지 않은 후에 어간 말음 ‘ㄹ’이 어미의 두음 ‘시’ 앞에서 탈락한 예이다.
6) 화자의 말 스타일에 따라 ‘으’ 실현 여부는 앞으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으’는 그밖에도 ‘연령’, ‘격식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그 실현율이 달라질 수 있다.
7) 본고에서는 ‘으’계 어미의 기본형을 제시할 때 ‘-(으)X’와 같이 제시할 것인데, 이것은 편의에 의한 것일 뿐, ‘으’계 어미의 기저형이 ‘-X’인가 ‘-으X’인가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으’의 ‘탈락’ 혹은 ‘삽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인데, 이것 역시 ‘으’계 어미의 기저형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이다. 본고의 관심은 ‘으’계 어미의 기저형이 아니라 단순히 ‘으’의 실현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또 어미의 기본형은 {-(으)ㄴ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많은 변이형 ‘-(으)ㅇ계’, ‘-(으)니께’ 등을 포괄하기 위해서 임의의 변이형을 기본형으로 선택한 것이다.

려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활용을 할 때마다 한 음소의 자질 중 어느 하나만이 수의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화자의 직관과 맞지 않다. 4)의 경우는 왜 유음의 자질 중 하나가 수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4) 듣(聞)- + -(으)시- + -고 → [드르시고]~[드시고]

그렇다면 현대 전주 방언에서 어간 말음 ‘ㄹ’과 ‘으’계 어미와의 결합에서 ‘으’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19세기 후기 완판본 고소설 자료를 통하여 ‘으’의 수의적 실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국어에서 수의적으로 빈번히 실현되는 음운 현상이라면 그 이전 시기에서는 드물게나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5) ㄱ. 만군중이 다 아는(알--+는) 지 업더라<화통도下,1>
 ㄴ. 형실이 지극하면 사는(살--+는) 날리 잇난이라<춘향下,32>
 ㄷ. 비단 나쁜 안이라 만성 다투도 다 아는(알--+는) 바라<삼국지三,2>

- 6) ㄱ. 발심발심하며 이를 썩도독 썩도독 갈며(갈--+-(으)며) 온 몸을 쭈순 입틀 덧하며<춘향上,37>
 ㄴ. 이제 도도가 너하 서량병을 거나리고 잇스물 알면(알--+-(으)면) 반다 시 날을 헐치 못할 거신나<삼국지三,25>

5)는 ‘으’가 실현되지 않는 예이고, 6)은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하지는 않았지만 ‘으’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5)와 6)의 예는 ‘ㄹ’ 말음 어간 뒤에서 ‘으’계 어미의 ‘으’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 7) ㄱ. 사지를 갈은(갈--+-(으)ㄴ) 더도 사싱 동겨 우리 낭군 사싱간의 못잇것 소<춘향下,13>
 ㄴ. 길을 인도하야 츄즌 스연을 낫낫치 알으니(알--+-(으)니)<조웅전,15>
 ㄷ. 계명산의 올라 통소를 부르니<불--+-(으)니> 초병이 듯고 비회 감동하야 다 이산한니<효한下,77>

드물기는 하지만 7)과 같이 말음 ‘ㄹ’과 ‘(으)ㄴX’의 결합에서 ‘으’가 실현되는 예가 나타나기도 한다. 비록 표기상의 오류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예가 나타남은 무시할 수 없다. 7)과 같은 예를 통하여 ‘ㄹ’ 말음 어간 뒤에서 ‘으’계 어미의 ‘으’가 실현되는 경향은 꽤 오래 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말음 ‘ㄹ’은 ‘-(으)ㄴX’계 어미 앞에서만큼은 탈락하지 않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며, ‘으’ 역시 자주 실현된다.

- 8) ㄱ. 익기씨가 아르시면(알--+-(으)시--+면) 지러 야단이 날 거시니 너며
 팔세 마옵쇼셔<춘향下,31>
 ㄴ. 나 죽은 후의라도 나 엇다 말으시고(말--+-(으)시--+고) 날 본다시
 섬기쇼셔<춘향下,34>
 ㄷ. 모친은 조금도 넘네치 말으쇼셔(말--+-(으)쇼셔) 하고 설과의 모즈
 서로 통곡하니<조웅전,3>

중세 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으)시-’는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으’가 실현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다른 어미들과 함께 어간의 ‘ㄹ’ 말음 뒤에서 ‘으’가 실현되지 않았다⁸⁾. 다른 ‘으’계 어미와 달리 ‘-(으)ㄴX’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 ‘ㄹ’이 자주 실현되는 경향은 중세 국어 시기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9) ㄱ. 願흔든 世尊이 法輪을 轉ᄃᆞ샤 衆生을 度脫ᄃᆞ샤 涅槃道를 여르쇼셔(열--+-(으)쇼셔)<1459월인석,14,022a>
 ㄴ. 오직 부테사 能히 아르시니(알--+-(으)시--+니) 이 니르산 密行이라<1463법화경,04,63a>

19세기 후기 완판본 고소설에서 ‘ㄹ’ 말음 뒤 ‘으’가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으)ㄴX’ 어미의 경우 ‘으’ 실현이 매우 활발하며, ‘(으)ㄴX’의 경우 드물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으’계 어미와 어간 말음 ‘ㄹ’의 결합에

8) ‘-(으)시-’는 기원적으로 용언 ‘이시-’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ㄹ’ 뒤에서도 ‘으’가 탈락하지 않고 실현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병근(1981), 황선엽(1995), 이동석(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서는 ‘으’ 실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⁹⁾.

그렇다면 후기 근대 국어에서 드물게 실현되던 ‘으’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그 빈도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으)ㄴX’ 또는 ‘(으)ㄴX’ 어미 앞에서만 ‘으’를 실현하다가, 실현 환경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음운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지려면, 어떠한 음운론적(또는 비음운론적) 동인(動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후기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 어떠한 음운론적 동인을 일으킬만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말음 ‘ㄹ’이나 ‘으’가 후기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떠한 음운론적 성질이 변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¹⁰⁾.

그러므로 우리는 ‘으’ 실현의 환경이 확대되고 그 빈도수 역시 많아지는 현상이 어떠한 비음운론적인 요인과 관련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 장에서는 현대 국어에 들어서 ‘ㄹ’ 말음 어간 뒤에서 ‘으’계 어미의 ‘으’가 실현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이유를 비음운론적인 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¹¹⁾.

3. ‘으’ 실현의 비음운론적 요인

3.1. 자동적 교체의 지향

현대국어에 들어서 어간 말음 ‘ㄹ’과 ‘으’계 어미와의 결합에서 ‘으’가 실현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19세기 후기 완판본 고소설에서도 드물게 보였던 ‘(으)ㄴX’ 또는 ‘(으)ㄴX’ 어미 앞에서 ‘으’가 실현

9) 다음과 같은 용례가 한 차례 등장할 뿐이다.

가. 우리 부자 무죄호문 청천도 알년이와 귀신들도 아르리라(알++(으)리++라)<리디봉전,10>

10) ‘ㄹ’이 자음성이 강화되었다거나 ‘으’가 모음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1) 새로운 언어 변이가 나타나고, 그것의 쓰임이 활발해지는 현상을 단순히 비음운론적인 요인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으’ 실현이 19세기 후기부터(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시작하여)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의성을 띠는 점으로 볼 때, ‘으’ 실현은 그 비음운론적 동인(動因)이 약하고, 음운론적인 동인(動因)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답보(踏步) 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수의적인 현상으로만 존재하다가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어간 말음 ‘ㄹ’을 가진 용언이 ‘(으)ㄴX’ 또는 ‘(으)ㄹX’ 어미와 결합할 때 ‘으’가 실현되지 않는 예를 보자.

- 10) 가. 그 이 옛날이 예언한 양반들뻘 말을 보통 똥명칭이덜이 알(알--+-(으)ㄹ) 수가 있간디<전북전주시완주군편,592>
 나. 한번 웃어 주고는 산개로(살--+-(으)ㄴ개로) 이주 기백하게 히고 살았 디야<전북전주시완주군편,171>
 다. 이 배 파시오(팔--+-(으)시--+오) 그런개 아 이 배 팔기는 파는디 당신 또 웃을라고 그러요?<전북전주시완주군편,198>

위의 예를 통해 활용형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편의상 대표 용언은 ‘갈:(耕)-’로 한다.

기저형	어미	표면형	예
	+CX(C는 ㄴ, ㄹ 제외)	[갈]	[갈:고], [갈:문], [갈:지]
갈:(耕)-	+(으)ㄴX 또는 (으)ㄹX	[가]	[간:개], [가:시오]
	+VX	[갈]	[가러서], [가러따]

실제 언어수행에서 청자는 화자의 표면형을 기저형에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화자와 의사소통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니]와 같은 표면형을 통해 청자는 ‘가다(去)’와 ‘갈다(耕)’ 중 화자가 의도한 어간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이는 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변용우(2006: 30~32)에서는 ‘놀다(遊[놀으니])’와 같은 형태를 화자가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간의 형태를 보존하려는 의지로 설명하였다. 변용우(2006)에 따르면 화자가 ‘ㄹ’ 탈락을 적용하여 [노니]와 같은 표면형을 도출하면, 청자는 (11)과 같은 활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니]→/놀:(遊)-+(으)니/와 같은 해득이 가능하다.

11) 화자 /놀:--+-(으)니/

‘르’탈락

↓ ↑

[노니]

청자

패러다임 정보

/놀:고, 놀:며, 노:니, 노:사니, 노:삼시오/

변용우(2006)

그러나 청자에 따라서는 ‘르’ 탈락 과정을 알지 못해 표면형을 기저형에 일치시키는 과정, 즉 해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새로운 방식의 자동적 교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놀:--+-(으)니’→[노르니]와 같은 과정인 것이다. 화자 역시 (11)과 같은 내용을 어휘부에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적 교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노력은 (12)로 나타난다. 언어 수행 시 화자가 비자동적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청자는 기저형 해득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12) 가. 여러 명이 달라 붙어 명석에다 말으니(말--+-(으)니) 당할 대로 다 당하고서는 한다 소리가<전북전주시완주군,502>

나. 그때는 딸이 손뼉을 딱 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살으셨다구(살--+-(으)시--+있--+다구)<전북전주시완주군,524>

위와 같은 활용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저형	어미	표면형	예
갈:(耕)-	+ (으)CX	갈	[갈:고], [갈:문], [갈:지] [가:른게], [가:른], [가:르시]
	+VX	갈	[가:러서], [가:러따]

어간 말음 ‘르’이 ‘(으)ㄴX’ 또는 ‘(으)ㄹX’ 어미와 만날 경우, ‘으’가 실현되는데, 이는 자동적 교체를 지향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화자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자동적 교체의 지향은 드물기는 하지만 19세기 후기 완판본 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패러다임의 수정을 통해 청자와의 의사소통 시 오해는 줄었지만, 개신형들이 활용 패러다임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13)과 같이 ‘갈: (耨)-’은 새로운 활용형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로 인해 활용 패러다임은 더 복잡해졌다.

13)		ㄱ. 먹(食)-	ㄴ. 갈(耨)-	ㄷ. 가(去)-
㉠	{-다}	[먹따]	[갈:다]	[가다]
㉡	{-어}	[머거]	[가러]	[가]
㉢	{-(으)ㄴ계}	[머근계]	[가른계]	[간계]
㉣	{-(으)ㄴ}	[머근]	[가른]	[간]
㉤	{-(으)문}	[머그문]	[갈:문]	[가문]
㉥	{-(으)라고}	[머그라고]	[갈:라고]	[가라고]

‘갈: (耨)-’은 ㉢, ㉣에서는 ‘먹(食)-’과 같은 방식으로 표면형을 실현하였지만, ㉤, ㉥에서는 ‘가(去)-’와 같은 방식으로 표면형을 실현하였다. 즉 ‘으’계 어미 중에서도 ‘(으)ㄴX’, ‘(으)ㄴX’와의 결합에서는 ‘으’를 실현하고, 여타의 ‘으’계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으’를 실현하지 않은 것이다¹²⁾.

활용 패러다임이 단순하지 않다면, 그만큼 화자는 활용형들에 대한 기억 부담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자들은 ‘갈(耨)-’의 경우 표면형이 ‘갈-’로 실현되는 경우와 ‘가-’로 실현되는 경우를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¹³⁾. 이것은 자동적 교체를 지향하여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어긋난다. 따라서 화자는 다시 ‘근’ 말씀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을 수정하게 된다.

12) 어미의 종류에 따라 ‘으’의 실현 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실현되는 ‘으’와 실현되지 않는 ‘으’의 음운론적(또는 형태론적) 성질을 다르게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이 다른 성질을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둘이 추상적인 형태 음소를 가졌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으’계 어미의 ‘으’는 그 음운론적(또는 형태론적) 지위가 동일하며, 실현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

13) 최명옥(1985)에서는 국어 변칙용언의 경우, 화자들은 변칙동사의 교체형에 대하여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칙동사의 교체형을 습득한다고 보았다. 굳이 변칙용언이 아니더라도 화자들은 복수기저형과 그 기저형들의 적용 환경을 어휘부에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3.2 패러다임의 단일화

14)		ㄱ. 먹(食)-	ㄴ. 갈:(耕)-	ㄷ. 가(去)-	
	㉠	{-다}	[떡따]	[갈:다]	[가다]
	㉡	{-어}	[머거]	[가러]	[가]
	㉢	{-(으)ㄴ계}	[머근계]	[가른계]	[가니]
	㉣	{-(으)ㄴ}	[머근]	[가른]	[간]
	㉤	{-(으)문}	[머그문]	[가르문] ¹⁴⁾	[가문]
	㉥	{-(으)라고}	[머그라고]	[가르라고]	[가라고]

전주 방언에서는 ㉤, ㉥과 같은 활용형들도 다수 나타난다. 하나의 용언에 대한 활용형들이 자동적 교체에 의한 것들이라면, 화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형들이 활용 패러다임 상에서 규칙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화자는 또 다시 난점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화자들은 14)의 ㉤과 ㉥에서와 같이 ‘-(으)CX(C는 ㄴ, ㅅ 제외)’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활용형들 만들어 낸다. 이러한 활용형들은 하나의 어간에 대한 활용형들의 패러다임을 단일화하려는 것이다.

즉 화자는 일차적으로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더 나아가 활용 패러다임의 단일화를 위해 ‘ㄹ’ 말음 어간의 활용형들의 개신형을 만들어 내었다. 전주 방언 화자는 ‘ㄹ’ 말음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으’를 실현함으로써 ‘자동적 교체’와 ‘패러다임의 규칙화’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14) 전주 방언에서는 ‘가르다(分)’, ‘조르다(求)’ 등의 어간 활용형이 [갈르문], [줄르문]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갈다(耕)’, ‘졸다(隴)’ 등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하여 개신형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다(耕)’ 등은 자동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활용형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가르다(分)’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들과 형태가 같아서 의사소통 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ㄱ. 딱 목아지를 잘르구서 배를 갈르낭계(갈르--+-(으)낭계) 머슴에 씻이 나와서 뭐라구 허응고 허니<전북전주시완주군,343>

- 15) ㄱ. 먹(食)-
 먹- + CX [먹꼬], [먹짜], [멍네] ...
 먹- + (으)CX [머그니], [머그문], [머그시오] ...
 먹- + VX [머거서], [머거요] ...
- ㄴ. 갈:(耕)-
 갈:- + CX [갈고], [가러따] ...
 갈- + (으)CX [가르니], [가르문], [가르시오] ...
 갈- + VX [가러서], [가러요] ...
- ㄷ. 자(宿)-
 자 + CX [자고], [자따] ...
 자- + (으)X [자니], [자문], [자시오] ...
 자- + VX [자서], [자요] ...

활용 패러다임의 규칙화는 곡용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일화를 획득할 수 있다. 곡용과 활용의 표면형이 같아짐으로 인해 또다시 의사소통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범주의 차이로 인해 그러한 오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가니’와 같은 표면형을 통해 기저형 ‘갈:(耕)-’ 또는 ‘가(去)-’를 찾아내는 수고에 비하면 사소한 정도이다.

- 16) ㄱ. 불(火)+-은 → [불은], *[분]
 ㄴ. 불(吹)+-(으)ㄴ → [불은]~[분]

개신형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규칙화되기 전까지 개신형과 기존형의 출현은 전적으로 화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 어휘에 따라서는 개신형의 출현이 아주 더딘 경우도 있다¹⁵⁾. 예컨대

15) 우리는 활용형의 변화가 점진적이어서 어휘에 따라 그 변화 속도가 다르다고 본다. 특정 어휘에 한해서는 개신형과 기존형이 한 방언 공동체 내에서 공존할 수도 있지만, 여타 어휘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미 역시 어간과 마찬가지로 재구조화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최명옥(1991)을 참고할 수 있다.

‘ㄹ’ 발음 어간이 어미 ‘-(으)ㄴ니다’와 결합할 경우 여타 어미와의 결합에 비해 ‘으’의 수의적 실현 정도가 낮은 듯하다¹⁶⁾.

17) ㄱ. 열 : (開)--(으)ㄴ니다 → [염:니다]~[여름니다]

ㄴ. 갈 : (耕)--(으)ㄴ니다 → [감:니다]~[가름니다]

활용 패러다임의 규칙화는 과도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전주 방언에서 ‘으’계 어미가 아닌 종결어미들과 결합할 때 표면형에 ‘으’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18) ㄱ. 졸:(睞)--냐고 → [조르냐고]~[조 : 냐고]

cf: 먹--냐고 → [명냐고], 자--냐고 → [자냐고]

ㄴ. 날:(飛)--네 → [나르네]~[나 : 네]

cf: 먹--네 → [명네], 자--네 → [자네]

18)은 전주 방언에서 흔히 나타나는 활용형이다. 18)과 같은 과도 교정은 ‘(으)ㄴX’계 어미와 결합 시 나타나는 활용형들을 재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전주 방언에서 ‘ㄹ’을 발음으로 가지는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으’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음운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주 방언에서는 ‘ㄹ’을 발음으로 가지는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으’가 빈번히 실현된다. 이는 19세기 후기 완판본 고소설 자료에서도 드물게나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

16)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용례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는 [여름니다], [가름니다]와 같은 발화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설 자료에서 ‘으’가 실현되는 용례는 대부분 ‘(으)ㄴX’, ‘(으)ㄴX’ 어미와의 결합에서였다.

둘째, ‘ㄹ’ 말음 어간이 ‘(으)ㄴX류’ 또는 ‘(으)ㄴX류’ 어미와 결합할 때 ‘으’를 실현하는 이유는 자동적 교체를 확대하려는 화자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 화자는 자동적 교체를 확대함으로써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화자는 자동적 교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통해 활용 패러다임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경우, 패러다임을 수정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ㄹ’ 말음 어간이 ‘(으)CX류’ 어미와 만날 때는 ‘으’를 실현시키는데, 이를 통하여 활용의 패러다임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창석(1982), 「현대 국어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50, 국어연구회.
- 김명규(1991), 「구개음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배주채(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주시경학보』 11, 주시경연구소
- 변용우(2006), 「국어 음운현상에 관여하는 형태 보존의 원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송철의(1991),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엄태수(1994), 「국어 기저형과 음운 규칙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석(2000), 「ㄹ탈락 현상과 ‘으’계 어미의 기본형」,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한글학회.
- 최명옥(1985), 「p-, s-, t- 변칙용언의 음운현상」, 『국어학』 14, 국어학회.
- _____ (1991),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1), 『구비문학대계』-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편-
-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nttila.R.(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박기덕·박성우 역, 『역사비교언어학개론』 1995, 민음사)
- Milroy, James.(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on the historical sociolinguistics of English*, Blackwell.

〈Abstract〉

‘ㄹ’ final stems and Optional realization of ‘으’ in Jeonju dialect

Baek, eun-a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optional realization of ‘으’ after final consonant ‘ㄹ’ of the stems in Jeonju dialect. We can account for ‘으’ realization after final consonant ‘ㄹ’ of the stems with speaker’s intention to block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 If complicated paradigm is happened, the speaker try to exchange paradigm by intention. Therefore when combine final consonant ‘ㄹ’ of the stems with (으)CX, ‘으’ is realized. So speaker can simplify paradigm of inflection.

Keywords : Jeonju dialect, ‘으’ type ending, ‘ㄹ’ final stems, optional realization, paradigm levelling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